



소규모 영화제 소소한 즐거움

광주독립영화제
(13~15일 광주극장)

광주여성영화제
(16~20일 광주극장)



See, So Independent ! 한국독립영화 인상작 총 26편 상영

올해 광주국제영화제 개최가 불발되면서 생긴 아쉬움을 메워주는 소규모 영화제가 잇따라 열린다.

오는 12일까지 광주극장에서 ‘스웨덴영화제’가 열리는 데 이어 광주독립영화제(집행위원장 조대영)와 광주여성영화제(집행위원장 김지연) 역시 광주극장에서 개막을 앞두고 있다.

먼저 스타트를 끊는 광주독립영화제는 13일~15일까지 영화팬들을 찾아온다. 5회째를 맞이하는 광주독립영화제는 지금까지 광주 지역 감독들과 작품에 ‘주목’했던 데서 한 발 나아가 최근 한국독립영화 진영에서 인상깊었던 작품들을 소개하는 등 외연을 확장한 게 특징이다.

총 26편이 상영되는 올해 슬로건은 ‘See, So Independent !’. 개막작인 ‘더 배틀 오브 광주(The Battle of Gwangju)’는 1980년 5월 27일 새벽, 전일빌딩 옥상에서 항전을 치르며 산화해간 이들의 모습을 독특한 방식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폐막작은 강민지 감독의 ‘천에 오십 반지하’가 선정됐다. 출업을 앞둔 예비 사회인인 청년감독이 방을 구하려고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리고 있다.

‘광주독립영화신작선’에서는 이성빈 감독이 고등학교 때 연출한 ‘출제오류’, 이순학 감독이 퍼포먼스 아티스트 김광철의 3대륙 투어를 함께하며 제작한 다큐멘터리 ‘필투게더’ 등 6편이 상영된다.

또 대구, 대전, 부산 지역 감독들의 영화를 만날 수 있는 ‘로컬시네마’전, 크고 작은 영화제에서 화제를 모은 단편이 상영되는 ‘단편영화의 맛’ 섹션도 관객들을 찾아간다.

그밖에 이스라엘 점령 상황 속에 살아가는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오월애’, 김태일 감독의 신작 다큐 ‘올리브 올리브 All Live, Olive’, 부산영화제 상영작이었던 극영화 ‘양치기들’도 선보



제5회 광주독립영화제 폐막작 강민지 감독의 ‘천에 오십 반지하’



제7회 광주여성영화제 개막작 사라 가브론 감독의 ‘서프러제트’

인다. 전편 무료 상영. 문의 010-4660-5792

제 7회 광주여성영화제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광주극장과 유·스퀘어 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영화제 주제는 ‘바람이 분다, 같이 가자’다. ‘바람’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으로, 그 열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연대를 주제로 삼았다. 상영작은 13개국 33편으로 8작품은 관객과의 대화도 마련돼 있다.

개막작은 지난해 개봉했던 사라 가브론 감독의 ‘서프러제트’다. 영화는 20세기 초 영국을 배경으로 여성 참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싸우는 여성 참정권 운동가 집단 서프러제트(suffragette)의 모습을 담고 있다.

바람이 분다, 같이 가자 새로운 세상 열망 13개국 33편 상영

폐막작은 지난해 여성영화제가 진행한 ‘첫 번째 관객(이야기 공모전)’ 당선작 ‘결혼 별곡’이다. 광주여성영화제에서 제작한 첫 번째 극영화로 일과 결혼 사이에서 갈등하는 여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다양한 소재를 담은 다큐멘터리들도 눈길을 끈다. 이영 감독의 ‘불온한 당신’은 혐오의 시대에서 사회적 약자 뿐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도 혐오의 대상이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두 개의 문’(2011)을 연출한 김일란 감독과 이희상 감독이 연출한 ‘공동정범’은 용산 참사 이후 국가 폭력의 피해자에서 범죄자로 낙점받은 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또 윤기현 감독의 ‘가현이들’은 알바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들을 대변하는 세 명의 가현이들의 이야기이다. 세 영화 모두 영화 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가 진행된다.

그밖에 케이트 윈슬렛 주연의 ‘드레스 메이커’나 줄리안 무어의 ‘로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바닷마을 다이어리’ 등 극장에서 상영됐던 화제작을 다시 만날 수 있으며 이나정 감독의 ‘눈길’, 김효정 감독의 ‘소녀와 여자’, 광주출신 이소현 감독의 ‘할머니의 먼집’도 관객들을 만난다. 또 작품성과 실험정신이 뛰어난 단편영화 16편도 선보일 예정이다.

주최측은 두번째 ‘관객 이야기 공모전’도 진행한다. 선정작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시나리오로 각색한 후 내년 영화로 제작할 계획이다.

개막작 제의 전편 무료 상영. 홈페이지(cafe.daum.net/wffig) 참조. 문의 062-515-6560.

한편 13일까지 광주극장에서 열리는 ‘스웨덴영화제’에서는 ‘베베 롱스타킹’의 저자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삶과 작품 세계를 담은 다큐 ‘아스트리드’를 비롯해 ‘썬클’, ‘소피엘’ 등 모두 8편의 영화가 무료 상영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 시대 아버지들 ‘세일즈맨의 죽음’

극단 Y, 내일~11일 광주 북구 청소년수련관



지역 극단 Y가 아서 밀러의 대표작 ‘세일즈맨의 죽음’을 공연한다. 8일~11일 오후 8시 광주북구 청소년 수련관 상상마루 공연장.

급격한 사회변화로 실직하고 목숨까지 잃게 되는 현대인의 소외를 다룬 ‘세일즈맨의 죽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해주는 작품이다.

30년간 세일즈맨으로 살아온 주인공 공 윌리 로만은 자신의 직업을 자랑스로 삼고 성실하게 일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신념 아래 한평생을 보내왔다. 윌리는 두 아들 비프와 해피에게도 자

신의 이러한 신조를 불어넣는데, 특히 큰 아들인 비프의 성공에 관심이 많다. 아렸을 때, 존경하는 아버지를 찾아갔던 비프는 그 현장에서 아버지의 불륜을 마주하게 되는데...

최영화 호남대 교수가 연출을 맡았으며 이현기, 박경단, 최유규, 임흥석, 윤미란, 김주열, 김경옥, 이재연, 조민주, 정나일씨 등이 출연한다.

희망문화 티켓 ‘영화도 보고, 연극도 보고’(연극과 메가박스 전대점 동시 관람) 작품으로 티켓 가격은 1만원이다.문의 010-3615-948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조선시대 산과 의학서 ‘태산집요’ 400년만에 발견

초기 산과(産科) 전문 의학 교과서인 ‘태산집요’(胎産集要)가 400여 년 만에 발견됐다.

의사학(醫史學) 연구자인 박훈평 화순 마루요양병원 과장은 16세기 전반에 출간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속활자본 태산집요 한 권을 찾아냈다고 6일 밝혔다.

조선왕조실록과 경국대전에 등장하는 ‘태산집요’는 성종 3년(1472) 이전에 초간됐고, 이후 의과(醫科) 과목의 하나로 채택돼 의관 교재로 쓰였다. 그러나 허준이 1608년 펴낸 ‘언해두장집요’(諺解痘瘡集要)의 발문에는 망실(亡失)된 의서로 기록돼 있어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에 나온 태산집요는 107장 분량으로, 책등에 ‘태산집 육’(胎産集六)이라고 필사돼 있다. 다만 책의 정보를 담은 간기(刊記)와 발문이 없어 정확한 출판 시기는 알 수 없다. 이에 대해 박과장은 1455년에 만든 금속활자인 ‘을해자’로 찍었고, 활자의 마멸 사례가 보이는 점으로 미뤄 16세기 전반에 제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태산집요의 발견으로 새로운 사실(史實)도 밝혀졌다. 그동안 태산집요는 19세기에 편찬된 ‘증정동국문헌비



고’(增訂東國文獻備考)를 근거로 노증례가 쓴 ‘태산요록’(胎産要錄)과 동일한 책이라고 알려졌으나, 두 서적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규명됐다.

또 새롭게 발견된 태산집요는 편제와 전체적인 내용이 동양 최대의 의학사전인 의방유취 권228~229의 ‘산난(産難)’과 매우 흡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과장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금속활자본 의서인 의방유취 권201, 언해태산집요 등이 보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태산집요도 보물급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과장은 태산집요에 관한 연구 성과를 담은 논문 ‘새로 발견된 조선 전기 의학서 태산집요 연구’를 한국학중앙연구원 학술지 ‘장서각’ 36집을 통해 발표한다.

/연합뉴스

경매에 관한 모든 것!

오천경매

▶비법 배우실 분/
특수물건만 취급
교육비 등 1200만원

▶투자 하실 분/
공동 투자 가능
연 20% 수익 보장

▶단, 상담후 본사 결정

대표 최선규
H. 010-3605-5000